

보도시점 : 2024. 3. 14.(목) 11:00 이후(3. 15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3. 14.(목)

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'현장의 목소리'를 듣다

- 3월 15일 두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... 정책 패러다임 전환 위해 적극 소통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.
 - 이번 간담회는 '민간임대주택'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,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「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」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.
- 주택·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15일(금)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,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 - * 참석기관 : 국토교통부, 한국주택협회·대한주택건설협회·부동산개발협회,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·한국리츠협회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
 - 먼저,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,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.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,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,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·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.
-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,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.

- 최근 1~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,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 -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·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.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”면서,
- “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,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계흥 (044-201-4100)
		담당자	사무관	류나린 (044-201-4109)



□ **행사개요**

- (일시/장소) '24. 3. 15.(금) 14:00 ~ 16:00 / 서울 태흥빌딩 7층
- (참석자) **국토부 장관님(주재)**, 주택토지실장, 주거복지정책관, 민간임대정책과장, 부동산투자제도과장, 주택기금과
관계기관 HUG, LH, 주거복지포럼
업계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, 임대관리협회, 리츠협회, 부동산개발협회, 건설사, 시행사, 임대사업자, 보험사

□ **주요 논의내용**

- ①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개선 방향(한국주거복지포럼 대표)
- ② 민간임대주택 관련 1.10대책 추진현황 (국토부)
- ③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(전체)

□ **진행순서**

시 간		주요 내용	비고
14:00~14:05	5'	▶ 모두말씀	장관님
14:05~14:10	5'	▶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개선 방향	주거복지포럼 대표
14:10~14:15	5'	▶ 민간임대주택 관련 1.10대책 추진현황	주거복지정책관
14:15~15:55	100'	▶ 자유토론	참석자 전원
15:55~16:00	5'	▶ 마무리말씀	장관님
16:00~		▶ 기자단 질의응답	